Dialogue

수진: 오~~ 날씨 진짜 좋다! 우리 한강으로 소풍 갈까?

빅터: 응,좋아!

수진: 한강 가서 뭐 먹고싶어?

빅터: 아무거나 괜찮아. 음식 싸갈까?

수진: 아니. 배달 시켜먹자!

빅터: 그래, 좋아! 돈은 니가 내라!

수진: 아유~ 오케이! **담요**랑 **돗자리**랑 **휴지** 챙겨 가자!

(한강에서)

수진: 뭐 시킬까? 피자나 치킨?

빅터: 둘다 시키자!

종업원 (전화로): 여보세요. 네네치킨입니다.

수진: 안녕하세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랑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무 많이 갖다 주세요. 그리고, 비

닐장갑 갖다 주세요.

종업원: 어디로요?

수진: 뚝섬역 3번출구로 갖다 주세요.

종업원: 출발할때 전화해 드릴께요. 카드예요, 현금이에요?

수진: 카드요.

종업원: 네, 알겠습니다.

(배달 온 후에)

빅터: 맛있겠다! 아, 음료 안 시켰어!

수진: 내가 콜라 싸온다고 했잖아!

빅터: 아니, 너 말 안 했어! 난 착한 남자니까 **편의점**에 갔다

올게.

수진: 나 먼저 먹고있을께!

Pattern [거의/하마터면] ... V(으)ㄹ 뻔하다

Meaning: to come close to, to be on the verge of doing V (but did not do it eventually).

날씨가 안좋아서 소풍을 못 갈 뻔했다.

Since the weather was not good, I almost did not go (=but went anyway).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시험에 떨어질 뻔했다.

Since I did not study a lot, I almost failed the test (=but passed anyway).

투자를 많이 했지만 돈을 거의 잃을 뻔했다.

Although I invested a lot, I almost lost all my money.

지갑을 안가져와서 결제 못 할 뻔했다.

Since I did not take my wallet, I almost could not pay (= but paid anyway)

KONIKOTEAN.COM	
소풍	picnic (also an excursion)
공원	park
배달	delivery (in general)
배달음식	food that can be delivered
음식배달	food delivery
담요	blanket
돗자리	mat
숟가락	spoon
젓가락 통 (桶)	a chopstick case
휴지	tissue (also toilet paper)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현금	cash
3[삼]번 출구	exit number 3 (subway)
비닐 장갑	plastic gloves
출발	departure
역 (驛) (강남역)	station (e.g., Gangnam st.)
짐을 챙기다/싸다	to pack up (2)
배달을 시키다	to order delivery (1/2)
배달을 주문하다	to order delivery (2/2)
배달 시켜 먹다	to order and then eat delivery food
저녁을 준비하다	to prepare/fix dinner (1/2)
저녁을 마련하다	to prepare/fix dinner (2/2)
도시락을 싸다	to pack a lunch box

Examples

공원 화장실은 머니까 치킨 먹을때 비닐 장갑을 챙겨야 합니다.

Since the restrooms of the park are far, you have to pack plastic gloves when you eat chicken.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pay cash, you can receive a discount.

좋은 자리를 찾으려면 일찍 가야 합니다.

To find a good spot, you have to arrive early.

일기 예보를 보고 날씨가 안좋으면 소풍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If the weather forecast is not good, you have to cancel the picnic.